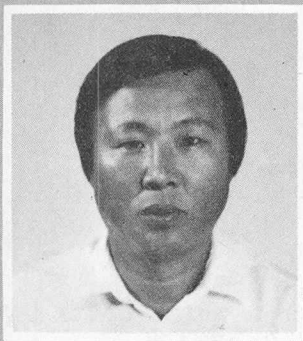


“종돈관리는 이렇게”



윤 덕 영
(덕영종돈장 대표)

양돈에 있어서 겨울보다도 더 어려운 계절인 여름을 맞아 사양칼럼을 쓰게 되어 아직도 미진한 내가 여러 양축가 제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농장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에 대해 함께 풀어보는 자세로 칼럼을 쓰고자 한다.

종돈장을 운영하는 내가 많은 양축가들과 농장문제를 이야기 하며 느낀 첫번째 문제가 번식돈들을 너무 급하게 이용한다는 것이다.

성성숙도 되지 않은 상태의 어린 돼지를 번식에 이용함으로써 스스로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사실이 비일비재 하므로 나름대로 경험에 의한 통계로 성성숙과 발정, 배란, 교배방법등의 순서로 열거하여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성성숙(性成熟)

① 웅돈(雄豚)

일반적으로 웅돈의 정충생산은 5-6개월령

부터 시작되나 이때는 생산된 정충도 미숙된 상태이고 웅돈자체도 후구등 골격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충실치 못한 상태이므로 종부를 시켜 수태(受胎)가 된다 하더라도 생산된 자돈이 충실하지 못하며, 정자 또한 미숙상태이기에 산자수도 기대하는 숫자에 못 미치게 된다.

따라서 종모돈(種牡豚)으로 이용하려면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우수한 형질의 자돈을 빨리 생산하고 싶더라도 첫 종부는 8~9개월령에 시행하고, 첫 종부후 1년간은 3~4일 간격으로 종부에 이용토록 해야만 2~3년간 우수한 종돈의 형질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6개월령부터 무리하게 이용하여 결과도 좋지 못하고 고작 1년 정도에서 도태하게 되므로 깊이 생각하여 실행함이 옳다고 생각된다.

② 빈돈(牝豚)

암돼지의 경우 영양상태가 좋을 경우 생후 4개월령부터 발정을 하나 이때는 배란이 되지 않고 수정역시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진성발정은 6개월에 오고 수태역시 이때가 되면 되지만 완전히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는 생후 17개월령이므로(영구치 17개월령) 모돈으로서 골격과 생식기관이 완전히 가깝게 성장되는 7~8개월령, 체중 130kg전후에 종부를 시키는 것이 여러 결과로 보아 무난함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초산돈은 배란수가 경산돈보다 적으므로 평균 8두 이상의 산자수를 얻으려면 힘이 들겠지만 개월수와 계체(計體)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당부하고 싶은 것은 초산에 산자수와 육성율이 좋지 못한 결과를 나타냈다 하더라도 조기 도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니, 종부시각과 관리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2산후에 결정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해야겠다.

2) 발정과 배란

① 발정

발정은 시작후 보통 2~3일(평균 60시간 내외)정도 지속되며 미경산돈과 경산돈은 지속시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주의깊게 관찰하면 미경산돈(치녀돼지)은 지속시간이 짧음을 알 수 있다.

발정개시와 종료는 불확실한데 이는 오랜기간 관리에 의한 경험이 수반되지 않는한 종부시간등을 정하기가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대체로 발정주기는 16~21일이나 일반적으로 발정주기는 경산돈이 길고, 생식체중과 이유체중이 낮은 것이 발정개시일령이 늦음을 명심하여 후보돈 선발에 참고해야겠다.

후보돈의 첫 종부는 개체에 따라 일정 웅돈만 허용하고 수돼지의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강제종부를 시킬 것을 권한다. 아울러 계절적인 영향으로 혹서기인 하절기에는 발정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니 시원하게 해주고 겨울철엔 추위를 이기기 위한 에너지 사료공급에 신경을 써야함도 잊지 말아야겠다.

경산돈일 경우 이유후의 발정재귀는 자돈수, 포유기간, 이유후의 영양상태등에 따라 차가 많으므로 모돈의 영양상태를 좋게 유지하도록 하여 이유후 7일 이내에 발정이 오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② 배란

배란이란 난소가 성숙하여 난포로부터 수정에 필요한 난자가 배출되는 것을 말하는데, 수정이 되어 분만되는 숫자로 보아 15~25개 내외로 생각된다.

배란은 대략 발정후 30여시간후 시작되는 것 같으나 배란되는 난자수는 발정주기중 사료의 에너지 양에 따라 비례되는 것 같고 수정된 태아수도 영양상태등에 따라 70% 정도만이 분만되는 것 같다.

3) 교배방법

정확한 교배방법이야말로 양돈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나름대로 본인의 양돈장에서 나온 결과에 의해 교배방법을 열거하면 발정시작부터 3~4일이 최적이다. 또한 특이한 점은 유색계통의 모돈이 백색계통의 모돈보다 1일정도 종부일이 빠르다는데 있다.

물론 외음부의 상태가 최적에서 주름이 잡힐 때가 적기이지만 랜드레이스나 대요크셔종은 주름이 잡힌 상태에서 듀룩이나 햄프셔종보다 1일 늦게 종부시키는게 수태가 잘 되었다. 따라서 분만일도 유색종은 대부분 114일에 분만되었으며, 백색종은 115~116일에 분만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일부 양돈장에서 분만일이 114일보다 늦는 예가 많은 것은 우리나라 육돈생산용 모돈이 랜드레스와 대요크셔의 교잡종인 F₁모돈이 주가 되기 때문이라 말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웅돈 허용시기에 종부를 시키면 종부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아 웅돈 허용시기와 수태율은 비례치 않다고 보는게 현명하다.

생리적으로 난자의 수명은 정자의 수명보다 짧으므로 이상적인 종부방법은 배란전에 종부시켜 정자가 난자를 대기했다 수태케 함이 옳다.

이상의 내용을 가지고 교배방법을 정리하면 유색계통의 종부적기는 수돼지 허용후 15~24시간 전후가 적기이고, 백색계통의 종부적기는 수돼지 허용후 25~60시간이 적기이므로 종부는 2회 이상 시키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각 양돈장에서는 모돈의 주품종을 이루고 있는게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종부적기와 분만예정일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지하여 주기 바란다.